



BMW M 역대 최고 성능 모델 콘셉트 XM 세계 최초로 공개

BMW의 고성능 브랜드 M이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 2021'에서 역대 최고 성능을 지닌 모델 '콘셉트 XM'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BMW 콘셉트 XM은 강렬한 디자인과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해 브랜드 고유의 극한의 드라이빙 경험을 한층 극대화한 모델이다. 외부 디자인은 BMW X 모델의 디자인을 진취적이면서도 독창적으로 재해석했다. 슬립하면서 아이코닉한 주간주행등과 시선을 사로잡는 키드니 그릴 윤곽 조명이 콘셉트 XM 디자인의 핵심 요소다. 이러한 디자인 언어는 앞으로 출시될 BMW 럭셔리 클래스 모델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실 내에는 최고급 소재가 대거 적용됐으며 뒷좌석에 자리 잡은 럭셔리한 M 라운지, 조각 작품을 연상케 하는 천장 등이 실내 공간에 화려한 감각을 더한다.

콘셉트 XM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M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시스템은 V8 엔진과 고성능 전기 모터가 결합돼 최고출력 750마력, 최대토크 102kg.m를 발휘하며, 전 기동으로 최대 8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콘셉트 XM은 2022년 하반기에 양산형 모델인 BMW XM으로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현대차그룹, 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1위

현대자동차그룹이 ESG 경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해 중국 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의 최고 기업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3일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1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자동차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는 중국 내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CSR 평가지수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업의 매출, 브랜드, 영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중국 내 300개 기업(국유, 민영, 외자 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활동 및 고용, 임직원 복지, 고객 만족, 친환경 기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부터 자동차기업 1위와 외자기업 2위에 올랐으며 올해 전체 기업 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중국 진출 20년을 앞두고 ESG경영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온 진정성을 중국 정부 및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62@donga.com

얼굴로 문 열고, 지문으로 시동...미래차의 정석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탑재 노면에 따라 최적의 승차감 제공 부스트 모드시 제로백 4초 감탄 고속 코너링 퍼포먼스에 엄지척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AWD 모델은 부스트모드 사용시 최대 출력 360kW, 제로백 4.0초의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전자식 차동제한장치(e-LSD) 등을 통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제공 | 제네시스

전기차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내연기관차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편안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단 익숙해지면, 그 편안함에 내연기관차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다.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앞서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5나 기아 EV6와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모델을 완전히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차감과 고성능을 구현해 제네시스와 왜 럭셔리 브랜드 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얼굴로 문을 열고 지문인식으로 시동

GV60은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방식에서부터 첨단 기술을 적용해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했다.

먼저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 등록 과정을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차기가 필요 없다.

운전석 도어에 장착된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능을 통해 차기가 없어도 문을 열 수 있고, 센터 콘솔에 장착된 지문 인식 장치를 통한 사용자 인증을 통해 시동을 걸 수 있다.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거는 동시에 센터 콘솔 중앙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전자 변속기인 크리스탈 스피어(Crystal Sphere)가 회전하며 변속 조작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실내 인테리어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무드등+크리스탈 오브제(objet)의 역할을 하고, 시동을 켜면 변속 조작계가 되는 이 시스템은 GV60을 더 확실한 미래차처럼 보이게 해준다.

●승차감의 비결은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승자는 최상위 퍼포먼스 AWD 모델로 전륜과 후륜에 각각 최대 출력 160kW 모터가 장착되어 합산 최대 출력 320kW(부스트모드 사용시 360kW)와 최대 토크 605Nm의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시승을 시작하면서 성능보다 더 인

상적이었던 부분은 차원이 다른 승차감이다. 퍼포먼스 AWD 모델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다. 전방 카메라로 인식한 노면 정보와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서스펜션의 감쇠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해주는 기능이다.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와 같이 차량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노면 상황이 인지되면, 감쇠력을 조절해 차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피칭(Pitching) 현상을 상대적으로 완화시켜준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역시 서스펜션 감쇠력을 조절해 승차감을 원하는 주행 특성에 맞게 바꿀 수

구분	GV60
전장(mm)	4515
전폭(mm)	1890
전고(mm)	1580
축거(mm)	2900
모터 최대 출력(kW) / 토크(Nm)	고성능 4WD 360 / 700(부스트모드 사용 시)
복합전비(km/kWh)	4.1 (21인치 기준) / 5.1 (19인치 기준) / 4.5 (19인치 기준)
배터리 용량(kWh)	77.4

다. 다만 아쉽게도 GV60 스탠다드 2WD 나 GV60 스탠다드 AWD 모델에는 이 기능이 빠져있다.

퍼포먼스 AWD 모델만의 특화 기능은 또 있다. 바로 포르쉐가 부럽지 않은 부스트 모드다.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노란색 부스트 모드 버튼을 눌러 활성화하면 10초간 최대 합산 출력이 360kW까지 증대되어 폭발적인 가속력을 경험할 수 있다. 부스트 모드를 활성화한 제로백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4.0초다.

노면과 주행 상황에 따라 좌우 바퀴 구동력을 알맞게 배분해 레이싱 서킷 주행까지 무리 없이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식 차동제한장치(e-LSD)도 장착되어 있다. 고속 코너링을 해보면 퍼포먼스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GV60 퍼포먼스 AWD 모델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68km이며, 가격은 7239만 원 부른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4171대 판 BMW, 두 달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11월)

11월 신규등록대수 31.4% 감소 올해 누적 판매량은 벤츠가 1위

수입차 업계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11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1만8810대로, 전년 동월(2만7436대)보다 3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누적 판매대수는 25만2242대로 전년 동기 24만3440대보다 3.6% 증가했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BMW가 4171대를 판매하며 두 달 연속 판매 1위 브랜드에 올랐다. BMW는 5시리즈가 876대 판매되며 전체 판매량을 견인했고, 3시리즈(570대)와 SUV 모델인 X5(423대)도 모델별 11월 베스트셀링카 톱10 안에 포진하며 BMW의 판매 1위를 이끌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3545대, 아우디 2682대, 볼보 1317대, 폭스바겐 910대, 렉서스 866대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2021년 누적 판매량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BMW 5시리즈

6만9400대로 BMW(6만1436대)를 앞서고 있다.

연료별로 살펴보면 가솔린 9444대(50.2%), 하이브리드 6054대(32.2%), 디젤 1724

대(9.2%), 플러그인하이브리드 820대(4.4%), 전기 768대(4.1%) 순으로 친환경 모델의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협회 기준(트램플) 11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렉서스 ES300h(698대)가 차지했고, 아우디 A6 45 TFSI(521대), 볼보 XC40 B4 AWD(497대) 순이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임한규 부회장은 "11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브랜드별로 신차효과와 물량해소라는 긍정적 요인과 반도체 공급난에 기인한 공급부족 등의 부정적 요인이 맞물려 전체 등록대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2			3			
7		6		9				5
5	3		1			4	9	
		1	8		9			
8		3		2				1
		5	7		6			
1	5			2		9	6	
6			7		5			4
		7			5			

■ 스도쿠정답

2	8	9	6	1	3	7	5	4
7	1	5	3	8	2	9	6	4
5	3	4	1	9	8	2	7	6
8	2	9	1	7	6	5	4	3
1	7	2	5	8	9	6	3	4
6	7	8	1	2	9	3	4	5
9	1	2	6	8	5	7	4	3
4	9	2	8	7	5	1	3	6
6	9	1	8	9	2	7	3	4
8	9	2	9	7	1	8	6	1
2	7	8	1	2	6	9	5	3
2	8	7	9	8	1	5	9	6
1	8	9	6	7	2	3	4	5
7	6	5	2	1	9	8	3	4
9	1	7	5	8	6	2	9	3
9	2	6	9	1	2	7	8	5

■ 낱말문제

1	가	2	3	4	5	나
14		15		16		
13						17
12				10		18
11						
마		10		9		라

■ 열쇠 01. 컴퓨터 모니터의 화상이 텔레비전의 화상처럼 움직이는 것. 02. 위와 가운데와 아래, 또는 그런 세 등급. 03. 뒷사람이나 반가운 사람이 올 때에 마당으로 내려와서 맞이함. "오당영" 04. 붓 대신 손끝 혹은 손톱에 먹물을 묻혀 그리는 그림.

05. 꽃의 액을 짜내어 만든 향수. 06. 모든 사람을 선으로 이끌고 악으로 부터 보호하는 천사. 07.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 08. 일상생활에서 몸의 움직임. "오거오작" 09. 사람이나 상점, 회사 따위의 이름을 짓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0. 바지 따위에서 다리가 들어 가도록 된 부분. 11. 이가 되든지 해가 되든지 간에. "오불리오" 12.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 13.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 14. 네모반듯한 정자. 15. 과일, 꽃, 화병 따위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들을 놓고 그린 그림. 16. 술술 부는 화창한 바람과 알맞은 비. 17.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18. 크게 부르짖어 열변을 토하는 연설을 이르는 말.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마칸을 이어놓으면 영화 제목이 됩니다.

IC	IC	울	노	로	IC	을	IQ	록
11								12
14		14	14	14	14	14		14
13		13						13
12								12
11								11
마		10		10		10		10
10		10		10		10		10
9		9		9		9		9
8		8		8		8		8
7		7		7		7		7
6		6		6		6		6
5		5		5		5		5
4		4		4		4		4
3		3		3		3		3
2		2		2		2		2
1		1		1		1		1